

## 조선 후기 국문시가 속 ‘바다’가 부정적으로 형상화 된 이유

이수곤\*

— <차 례> —

1. 서론
2. 바다 인식의 세 가지 양상
3.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바다 : <표해가>, <도해가>, <일동장유가>
4. 폐쇄적 소중화주의와 해금정책
5. 결론

### <국문초록>

왜 국문시가에서 바다는 환영받는 문학적 소재가 되지 못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고는 비롯되었다. 바다 소재 국문시가를 찾기도 힘들다. 드물게 보이는 바다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 일쑤였다. 이런 문학적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었다.

조선 후기 <표해가>, <도해가>, <일동장유가>를 살펴본 결과, 바다는 다분히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표현되었다. 바다는 바다 밖 공간의 규정 여하에 따라 형상화 양상이 다른데, 조선 후기에는 바다 저편인 청국·일본·서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이는 ‘폐쇄적 소중화주의’와 ‘해금정책’의 영향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 국문시가 속 바다는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제어** 바다, 바다 밖 공간, <표해가>, <도해가>, <일동장유가>, 폐쇄적 소중화주의, 해금정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기금조교수

## 1. 서론

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가장 문제시된 것은 李朝文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詩歌가 그렇다. 李朝詩歌의 내용은 반 이상이 자연이고, 그 자연의 지나칠 정도의 풍부함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상한 감까지 느끼게 하며, 나아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생각키우게 한다.<sup>1)</sup>

최진원의 말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자연은 특히 시가의 주된 문학적 소재가 되었다고 하였다. 통계상 구체적인 지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시가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비중의 막대함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자연[江湖]을 소재로 한 시가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조선시대 시가의 史的 高峯<sup>2)</sup>이 가능한 것도 이의 방증이다. 그런데 자연이면서도 ‘바다’는 사정이 다르다.

십여년 전에 제주도 학술 답사에서 영조(英祖)조 문인 장한철(張漢喆)이 쓴 『표해록(漂海錄)』을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한 일이 있었다. 우리의 국토가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다와 친근하게 살았을 것 같지마는 사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모르고 살아온 겨레라는 것을 깨닫고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sup>3)</sup>

- 
- 1)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7쪽.
  - 2) 김홍규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쓴 일련의 논문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김학성·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김홍규, 『〈어부사시가〉에서의 ‘홍’의 성격』,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집,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6.  
박영주, 『조선전기가사를 통해 본 자연과 서정』,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3.  
신영명, 『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0.
  - 3) 정병욱, 『고전 탐구의 뒤편에서』, 신구문화사, 1982, 331쪽.

1980년 『경향신문』에 실린 정병욱의 글이다.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바다는 그리 친숙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서술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학적인 조건을 염두에 둘 때, 바다를 미지의 공간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진술은 의아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바다 인식은 장한철의 『표해록』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 형상화된 바다는 거개가 『표해록』의 바다 인식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실 국문시가의 경우,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 자체도 찾기가 힘들다. 조선시대 국문시가는 자연을 문학적 주요 공간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특이한 현상으로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어째서 국문시가에서 바다는 환영받는 문학적 소재가 되지 못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고는 비롯되었다. 바다 소재 국문시가를 찾기도 힘들다. 설사 드물게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바다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 일쑤다. 이런 문학적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바다를 인식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세 가지 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고의 기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다음 바다를 소재로 한 조선 후기 국문시가인 <표해가>와 <도해가>, <일동장유가> 등을 중심으로 바다의 형상화 양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나서 폐쇄적 소중화주의와 해금정책을 그 원인으로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2. 바다 인식의 세 가지 양상

자연 질서와 인간 질서의 분리는 근대의 소산이며, 자연은 포섭과 통섭

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sup>4)</sup> 중세 조선은 위계와 공동체 질서가 규범이 되는 사회였으며, 자연도 인간 질서의 공동선상에서 의미화되었다. 즉 인간 질서와 자연 질서는 같게 인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려는 시각이 전제된 듯하다. 우리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며, 일원적인 명확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공간이다. 주변은 흐릿하고 부정적인 곳으로 규정된다.<sup>5)</sup> 주변은 이데올로기가 작동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심 대 주변은 ‘플러스/마이너스, 선/악, 낮/밤, 질서/무질서, 문화/반문화, 문명/야만’ 등의 대립 항이 설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 질서와 인간 질서를 동일시하는 인식은 자연이 인간과 같이 중심에 놓여있을 때 작동한다. 같은 이데올로기 속에 통합된다. 중심에 위치한 자연은 Nature(물리적 자연)로서라기보다는 self-so(저절로 그러함)로 성격을 다분히 지닌다. 그런데 중심의 저편 혹은 저편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자연이라면, 상황 자체가 다르기에 인식도 다르다. 산·강과 다르게 바다는 경계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동양에서 바다는 여느 자연과 달리 인식되었던 듯하다. 즉 바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지 못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었다. ‘海’는 중심의 저편 혹은 중심과 저편을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6)</sup>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떼[뗏목]를 타고서 바

4) 츠베탕 토도로프·베르나르 포크롤·로베르 르그로, 전성자 옮김, 『개인의 탄생』, 기파랑, 2006, 138~145쪽.

5)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문화의 두 얼굴』, 민음사, 2003, 7쪽.

6) 김창경, 「중국 고전문헌에 보이는 ‘바다(海)’의 의미」, 『동북아 문화연구』 1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237쪽.

다에 떠 갈 것이니, (그때)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중유(仲由)이겠지.” 하셨다. (子曰, 道不行이라 乘하여 浮于海하리니 從我者는 其由與인저.)<sup>7)</sup>

공자께서 '구이'(九夷)의 땅에서 살고자 하셨다. (子欲居九夷)<sup>8)</sup>

“동방의 오랑캐[東方之夷]가 아홉 종류가 있었다. ‘거처하고자 하였다[欲居之]는 것은, 또한 (『논어』 제5편 「공야장」 편 ‘부해’장의) ‘뗏[뗏목]를 타고서 바다에 떠 갈 것’이라는 뜻이다.”(東方之夷有九種, 欲居之者, 亦乘浮海之意)는 두 번째 인용문 주(注)의 내용이다. ‘바다’는 ‘구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바다는 중앙과 동떨어진 주변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낙후성과 비문명성을 내포하였다.<sup>9)</sup> 즉 ‘바다’ 저편은 오랑캐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치화권(治化圈)[治]이 9주(九州)에 지나지 않았으니, 성인께서 사해(四海)의 밖에까지도 아울러 구제되기를 바라시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돌아보건댄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바가 있었을 따름이니, (바로) 이런 점이 (그) 구제하는 사람이 많지 못한 것을 근심함[마음의 병으로 여긴] 것이니, 이를 미루어서 자기 몸을 닦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기를 추구한다면, 병[어려운 일]을 삼은 것을 (가히) 알 만할 것이니, 진실로 나의 다스림이 이미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문득] (그), 성인은 아닌 것이다.> 하였다. (治不過九州, 聖人, 非不欲四海之外, 亦兼濟也, 顧其治有所不及爾, 此, 病其濟之不衆也, 推此, 以求修己, 以安百姓, 則爲病可知, 苟以吾治已足, 則便不是聖人.)

『논어』 「옹야」편, ‘시제’장 주(注)의 일부분이다. ‘四海之外’는 ‘다스림

7) 『論語』, 「公治長」篇, 「浮海」章 참조 『논어』의 해석은 정요일의 책을 따랐다. 정요일, 『논어강의 天』, 새문사, 2009, 3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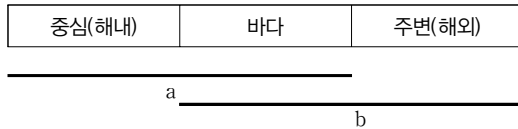
8) 『論語』, 「子罕」篇, 「居夷」章 참조.

9) 김창경, 앞의 논문, 243쪽.

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다. 고대 중국 사람은 중국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다고 생각했다. 국경의 안쪽을 '海內'로 불렀다고 한다.<sup>10)</sup> '해외'는 중국 이외의 지역이 된다.<sup>11)</sup> 중화의식에 근거하여, '해내'와 '해외'에 대한 인식은 판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의 '외'는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공간·구이의 공간·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의 의미를 지녔고, 바다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유가적 사유 속에서 '바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해내'와 '해외'는 '중화 대 오랑캐'·'문명 대 야만'·'긍정과 부정'·'문화 대 반문화'·'질서 대 혼란'의 양항대립으로 의미화되고, 바다를 경계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바다에 대한 세 가지 인식 양상을 살펴보자. 설명의 편의를 위한 도식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는 바다 밖 공간을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심'에 자리하고서 바다 밖 공간에 대한 인식 없이 바다를 바라본다. 이때 바다는 다양한 함의를 가진다. 앞서 말한 '문명 대 야만', '긍정과 부정' 등 양가적인 의미가 혼합되거나 혹은 작품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바다는 대개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으로 형상화된다.

10) 『辭源』, '海內'조, 북경 : 상무인서관, 1998, 975쪽.

11) 같은 곳.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만경징파에 슬카지 용여하자  
    지국총지국총어사와  
인간을 돌아보니 머도록 더욱 좋다      (『어부사시사』 秋 二)

『어부사시사』는 강호 저편의 정치 현실에 대한 강박보다는 강호에서의 미적 감흥과 기쁨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김홍규는 말하고 있다.<sup>12)</sup> 그 이유로 정치 사회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들고 있다. 16세기는 사림과 훈구파의 대립적 상황이, 윤선도가 살았던 17세기는 사림 안에서의 대립적 상황이 갈등의 근원이었다고 하면서,<sup>13)</sup> 그래서 자연도 16세기는 수기의 공간이었지만, 17세기는 심미적 충족·해방과 드높은 흥취가 좀 더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런 시각에서 만경징파 즉 바다는 흥취의 공간이다. 고기가 살져 있는 풍요의 공간이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라래 살어리랏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라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 6연)

불취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뵘씨 꽃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ㅁ르래 아니그출씨 내히 이러 바라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2장)

12) 김홍규,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556쪽.

13) 위의 논문, 557쪽.

14) 위의 논문, 558쪽.

여기서 바다는 이상향이자 문화의 풍성함을 뜻한다. <청산별곡>과 『용비어천가』의 바다 의미가 이상향과 문화의 풍성함이라는 데에는 쉼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양지로서의 바다를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느린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다마가니, 출하리 한강의 목맥의 다히고져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유희도 하도할사 객수도 둘 의 업다 선사를 썩워내여 두우로 향호살가 선인을 차차려 단혈의 머무살가 천근을 못내 보와 망양정에 올은 말이 바다뵈근 하늘이니 하늘 뵈근 무서신고 곱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 디고 은산을 것거내어 육합의 느리느듯 오월장천의 백설은 므스 일고

<관동별곡>의 일부분이다. 시적 화자의 마음속에는 왕정과 풍경의 대립항이 존재한다. 페르소나와 아니마의 대립이기도 하다.<sup>15)</sup> 관찰사라는 관원으로서의 여정인 ‘왕정’은 끝을 향하고 있다. 절경인 태백산 그림자를 한강 남산에 담아 흐르게 하고 싶어 한다.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떠올린다. 그런데 자연 속에 묻혀 신선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샘솟고 있다. 마음이 아니마로 기우는 듯 보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심리적 갈등의 절정이라 해도 되겠다. 이런 갈등이 성난 듯 일렁이는 바다로 묘사된다. 현실/자연·치인/수기 등의 대립항을 상징할 수 있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파도의 이미지로 나타낸다. 여기서 바다는 혼돈이자 불안이고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음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성덕왕 시대에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가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점

15)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7쪽.

심을 먹었다. …(중략)…거기서 점심을 먹던 중에 바다 용이 돌연히 부인을 차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다. …(중략)…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그에게 바쳤다. 순정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 일을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칠보로 꾸민 궁전에 먹는 음식들이 달고도 연하고 향기롭고도 깨끗하여 인간세상의 음식이 아니더이다” 하였다.<sup>16)</sup>

바다의 용이 남의 부인을 채가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기에 바다는 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수로부인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는 바다는 상당히 신비롭다. 바다 음식은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닐’ 정도로 향기롭고 깨끗하다. 부인의 옷에 묻혀 온 향기는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바다는 양과 음의 이미지가 혼재된 공간이거나, 양과 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공간이다. 수로부인을 채가지고 간 적대자, 위협을 당해야 하는 존재인 용이 사는 공간이 바다이면서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부정과 신비의 공간으로 바다는 형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바다는 미지의 공간이라 하겠는데, 미지라는 단어 속에 부정과 신비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a 상황에서 바다는 양지와 음지, 때로는 미지의 모습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관념적 성격을 띠면서 형상화된다. 이에 비해 b는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또 형상화된다.

둘째, b는 바다 밖 공간을 인식한 상황이다. 바다 밖 공간을 의식하게 되면 바다는 상징적이기보다는 물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향을 보인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바다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다. 즉 바다는 self-so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nature로서의 자연이다. 물리적이면서 구체성을 띠기에 바다는 a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표화 되어 나타나기 쉽상이다.<sup>17)</sup>

16) 일연, 리상호 옮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1999, 161~162쪽.

바다는 안과 밖을 구별 짓는 경계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바다 밖 공간이 부정적 시각이 전제된다면 경계 안은 질서와 타당성이 보장된 공간이 된다.<sup>18)</sup> 타당성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이에 바다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기 십상이다. 바다는 확일적이면서 공고하게 형상화된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다 밖 공간이 긍정과 희망으로 규정되면, 바다의 형상화 양상 또한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다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세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주변(해외) 인식	바다 성격	바다 인식
a	인식 없음	관념	다양
b-1	부정	구체	부정
b-2	긍정	구체	긍정

바다의 인식에 대한 위 도식과 같이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이든 문학적 형상화든, 하나의 모습으로 단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도식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식화한 이유는 좌표 설정을 하기 위함이다.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바다의 다양한 형상화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장을 달

17) 무표화(unmarkedness)란 중성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두드러지게 인식되지 않는 기호를 말한다. 기령 <어부사시사>는 시적 배경을 바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인식되지 않고서 감상될 여지가 많다. 이때 바다는 무표화된 기호이다. 이에 반해 유표화(markedness)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며, 중성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기에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기호를 말한다. 관념적일 때는 무표화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때 유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8) 야마구치 마사오, 앞의 책, 168쪽.

리하여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서 바다는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바다 : 〈표해가〉, 〈도해가〉, 〈일동장유가〉

“漂海”를 소재로 한 유일한 시가 작품인 이방익의 〈표해가〉를 통해, 시가 속에서의 바다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자. 바다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다 저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丁巳正月 初四日에 廈門府에 드러가니  
紫陽書院 네글자를 黃金으로 메웠는데  
甲紗帳 둘러치고 左右翼廊 奢麗하다  
내비록 區區하나 禮義之國 사람이라  
이書院 지나가며 엿지瞻拜 아니리오  
拜禮를 畢한後에 殿맞게 나와보니  
數百儒生 갈나안져 酒饌으로 推讓한다  
念七日 轎子타고 福建으로 發行하니  
天聚府가 어대매뇨 이또한 넛국도(國都)라  
城郭은 依舊한대 人物도 繁華할사  
使者의 뒤를싸라 層閣에 올라서니  
唐紅緋緞 繡方席이 안끼가 恍惚하다

하문부 소재 자양서원에서 유생들과 예를 갖추고 주찬을 함께 한다. 번화하고 황홀하다. 18세기 무렵 청나라 때 작품인데, 중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강남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강남은 아직도 명나라의 풍속이 남아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강북에 대한 인식은 사뭇 다르다.

江南을 離別하고 山東省 드리오니  
 平原曠野 畝是穀食 黍稷稻粟 畚이로다  
 柴草는 極貴하야 수수대를 불싸이고  
 男女의 衣服들은 다써러진 羊皮로다  
 지저귀며 往來하니 그形狀 鬼神갓다  
 豆腐로 찐수수 煎餅猪油로 부쳤스니  
 아무리 飢腸인들 참아엇지 먹를소나  
 죽은사람 入棺하야 길가에 버렸스니  
 그棺이 다씩은後 白骨이 허여진다  
 夷狄의 風俗이나 참아 못보리로다

남녀의 의복은 다 떨어진 양가죽 같고, 대화하는 모습은 귀신같다고 했다. 차마 먹을 수 없는 음식, 길가에 버려진 시신들, 모두가 오랑캐의 풍속이다. 연경은 천자의 도읍이기에 웅장은 하지만, 백성들의 화려함과 자연의 수려함은 강남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라 할 수 있는 명분론적 사유와 관련된다.<sup>19)</sup>

遠山에 빗긴달이 물가운데 빛췌였다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이 헛셔린듯  
 하날인가 물빛인가 水天이 一色이라

19)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9쪽.

陶然히 醉한後에 船板치며 즐기더니  
 西北間 一陣狂風 忽然이 이어나니  
 泰山갓흔 눅흔물결 하늘에 다랐고나  
 舟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길 잇슬소나  
 나는새 아니어니 엇지살기 바라리오  
 밤은漸漸 김허가고 風浪은 더욱甚타  
 万頃滄波 一葉船이 가이업시 썬나가니  
 슬프다 무슴罪로 하(下)直업슨 離別인고  
 一生 一死는 自古로 例事로대  
 魚腹속에 永葬함은 이아니 冤痛한가  
 父母妻子 우는舉動 생각하면 목이멘다  
 죽기는 自分하나 飢渴은 무삼일고  
 明天이 感動하샤 大雨를 나리시매  
 듯대안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  
 渴한것은 鎮定하나 입에서 성에나네  
 밭그면 낮이런가 어두으면 밤이런가  
 五六日 지낸後에 遠遠히 바라보니  
 東南間 三大島가 隱隱히 소사났다  
 日本인가 짐작하야 船具를 補緝하니  
 무삼일로 바람形勢 쏘다시 變하는고  
 그섬을 버서나니 다시 못보리로다  
 大洋에 飄盪하야 물결에 浮沈하니  
 하늘을 부르즈저 죽기만 바라더니

<표해가> 서두, 바다 관련 구절이다. 출발은 좋았다. 달이 물 가운데 떠 있고, 청홍색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흥에 취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듯 바람이 분다. 당황하여 어찌 손을 써야 할지 모른다. 밤은 깊어가고,

갈수록 심해지는 풍랑 속에 배는 낙엽처럼 떠간다.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벌어진 현상이면서, 당대 바다 인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광풍은 홀연히 일어나고, 바람의 방향은 종잡을 수가 없다. 배는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다이다.

이렇게 바다는 무지와 미지의 공간이면서 두려움의 공간이다. 그래서 바다는 일정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된 항해의 공간이 아닌 정처 없이 떠도는 표류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산문이든 운문이든 바다를 소재로 한 조선 후기 문학은 거개가 ‘표(漂)’를 달고 형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러한 바다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에 이들과의 연결통로로서의 바다를 표해로 형상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앞서 말한 대로, 바다는 어떤 입각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식의 편차는 사뭇 다르다. 지금 발붙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입각점으로 할 때, 바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생명의 원천 / 죽음’, ‘풍요로움 / 삭막함’, ‘초월 / 냉혹한 현실’ 등 바다는 양과 음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질서이자 혼돈, 희망이자 두려움 등 모순 관계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바다다. 그러나 지금 삶의 터전이 아닌 바다 저편을 염두에 둔다면, 바다의 상징적 의미는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혼재가 아닌, 긍정과 부정 양극화 현상으로 형상화된다.

조선 후기는 바다 저편에 대한 인식이 불가피한 시대였다.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서양 각국이 앞다투어 조선을 상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대로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바다는 음지의 성향만을 띤다. 바다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불상하다 저 격군(格軍)아  
무삼 일노 임스(臨死)흔고

동구(洞口)땃 지나 셔셔 보니  
희식(海色)이 망연(茫然)하다  
가릿목이 험(險)홀세다  
넘어가기 위턱(危殆)하다

연도(烟島)섬이 묘연(杳然)하다  
어부(漁父)다려 길을 못세  
어전(漁箭)그물 길을 막아  
얼거지고 트러젓넛  
만첩 산중(萬疊山中) 드러간 듯  
허어날 슈 전혀 업넛  
모든 스격(沙格) 정성(精誠)드려  
소리치며 노를 저어  
간신 간신(艱辛艱辛) 버셔나니  
일낙서천(日落西天) 되어서라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이 고종 11년(1874) 함라태수 겸 성당창 조세 영운관에 임명되어 고종 12년 서해안의 조세선을 이끌고 강화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도해가>의 구절들이다.<sup>20)</sup> 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은 아니다. “수산장(睡山丈)이 함열(咸悅)고을 갈디 노중(路中) 의셔 지은 글인디, 곳곳지 경치(景致)가 도키이 벗기다”라고 가사 필사에 앞서 쓰여 있다. 수산장은 조희백의 호다. 조세선을 이끌고 강화로 향하는 도중 경치가 좋아 서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류라 할 수는 없

20) 최강현 편, 『기행가사 자료 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420~6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상황 서술은 ‘표해’와 마찬가지로 음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항해 도중 갑자기 사공의 일을 돕는 수부(水夫)가 죽었다. 바다 빛을 보니 망연하다.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위태롭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마치 만첩산중을 가는 듯 헤어날 길을 찾기가 힘들다. 모든 사공들이 해가지도록 정성을 다한 결과 간신히 벗어났다. 바다는 앞으로의 일을 가능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험하고 위태로워, 두려운 공간이다. 조선 후기의 바다는 표류가 아니더라도 대개 미지와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형상화된다.

이윽고 희뫼거늘 장관을 흥여보시  
 니러나 빅문열고 문셜쥬 잡고셔셔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싱 텃디간의 이런구경 쏘어딴이실고  
 구만니 우뫼속의 큰물결 분이로시  
 등뒤호로 도라보니 동넛뫼이 눈섭긋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히 ㄱ이업넛  
 우아래 프른빗치 하늘뫼기 다하잇다  
 슬프다 우리길이 어디로 가는작고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는 <일동장유가>의 한 대목이다. 바다에 해가 뜬 장관을 구경한다. 사면에 장한 기운이 펼쳐지는 장관을 구경하니 이런 경치가 또다시 없다. 그런데 작자는 돌연히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가”라 탄식한다. 즐거움을 즐거움으로만 만끽할 수 없는 공간이 바다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바다에서 사람들은 두통과 몸살 등

의 고통을 호소한다.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통상 '왜놈'으로 불리기에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실로 막대한 것이며, 이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바다는 환영받는 공간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바다는 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 이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자.

#### 4. 폐쇄적 소중화주의와 해금정책

바다는 근대 초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해상교역이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15세기 중엽까지 바다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명권이 상업 활동의 중심 영역을 차지하면서 바다를 휘젓고 다녔다고 한다. 그 증거로 중국지도에는 남아프리카 모양이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보다 올바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을 듯하다.<sup>21)</sup>

15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해양활동은 활발했다. 명나라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장악하였다.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鄭和 원정단의 규모는 실로 대단하였다. 1405년부터 1433년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화 원정은, 포르투갈의 원정과 비교해 보면, 기실 세계 최고였다 한다. 포르투갈 원정대는 3척의 배와 160명의 인원이었는데 반해, 정화 원정대는 60여 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 200여 척의 배가 동원되었고, 참가인원은 2만 7천 명에 이르렀다.<sup>22)</sup> 그런데 갑자기 해금정책을 펴면서 해상 활동을 중단하였다. 명대 이루어진 해금정책

21)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10~13쪽.

22) 신문기사 : “최근 복원, 공개된 정화의 함선”, 연합뉴스, 2006년 9월 28일.

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이면서 동시에 국제질서 확립을 포석으로 깔고 있었다. 華夷觀을 기저로 하는 조공체제 확립이 그것이다. 해금정책은 조공을 통한 무역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선과 일본을 강압하는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3)</sup>

해금정책은 명나라에 뒤이은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실행된다. 기본적인 해금정책은 명나라나 청나라나 마찬가지였다. 밀무역과 왜구의 침입 등은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해금정책 또한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청나라에 와서 1661년에 정성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계령(遷界令)이라는 더욱 엄격한 해금정책이 펼쳐진다. 정성공은 청나라에 항거하면서 명나라에 복종하는 명나라 잔존 세력이었다. 주로 동남 연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었는데, 청나라에는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sup>24)</sup> 이 세력을 제압하려는 수단이 천계령이었다. 유례 없이 강력한 해금정책이었다고 한다. 명·청의 바다정책은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입은 골칫거리였다.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어도 왜구의 문제는 계속되었다. 바다에 대한 강한 금지는 당연한 조치였다. 왜관, 즉 정식 한일 교류 공간을 제외한 곳에서는 일체 접촉을 금지하고, 섬에 거주를 금지했다. 왜구의 난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서였다. 해안과 섬은 임금의 덕화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sup>25)</sup>

조선의 해금정책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였다.<sup>26)</sup> 『경국대전』 『형전』 ‘용률’조에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대명률』과 다르거나

23) 임영정,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 31집, 동국사학회, 44쪽.

24) 홍성구, 「청조 해금정책의 성격」,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192쪽.

25)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연구, 2008, 33쪽.

26) 임영정, 앞의 논문, 46쪽.

없는 것만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대명률직해』에는 엄격한 해금이 명시되어 있다.<sup>27)</sup> 사대주의를 표방했던 조선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대명률(大明律)》에는, ‘소·말·군수 품(軍需品)·철화(鐵貨)·동전(銅錢)·단필(段匹)·주견(紬絹)·사면(絲綿)을 사사로이 국경 외에 내어다가 팔고 바다로 내어간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그것을 수송하고 운반한 사람은 1등(等)을 감형하고, 물화(物貨)와 배와 수레는 모두 관청에 거두어 들이는데, 그 중에 10분(分) 율(率)로 하여 알린 사람에게 주어서 상으로 충당한다.’ 하였다.<sup>28)</sup>

세종 8년 가산을 몰수하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형조 참판 정초(鄭招)의 건의 내용이다. 『대명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명나라에 있었다. 조선의 해금에 대한 조항과 그 처벌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대명률』의 수용 과정의 결과로 보인다.<sup>29)</sup>

명나라는 조선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조선은 사대교린 정책을 펴고 있었다. 명나라는 섬기고, 일본은 이웃 나라로서 친교를 맺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이 친교를 맺는 것은 명나라로서는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명나라는 조선에 일본과 거리 둘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주로 바다 통제로서 나타난다.

양주(楊州)에 갇혀 있는 왜인 소오예(蘇吾預) 등에게 옷·띠(帶)·갓[笠]·신[靴]을 내려 주고, 인하여 후(厚)하게 지대(支待)할 것을 명하였다.<sup>30)</sup>

27) 위의 책, 26쪽.

28) 『세종실록』, 세종 8년 4월 19일 기사.

29) 우인수, 「조선 후기 해금정책의 내용과 성격」, 이문기 외, 앞의 책, 125쪽.

“짐(朕)은 생각하건대, 왕이 조정(朝廷)의 동쪽 울타리[東藩]가 되어 대대로 예의를 지켜서, 그것으로 오랫동안 국가를 보호하고, 잔인한 것을 제(除)해 버리고 포착한 것을 없이 하여 선량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곧 천도(天道)이다. 왜적은 음흉하고 간사하여 노략질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으면서, 약(弱)하면 귀순하여 항복하고, 강(強)하면 날뛰니, 이것이 그 본래의 성질인 것이다. 왕의 변방을 지키는 두목이 그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왕래하며 교역하여서, 그 힘을 기르게 하여 오래 된다면, 비단 조정(朝廷)의 변방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왕의 나라의 허실(虛實)을 저들이 엿보아 알 것이니, 역시 해(害)되지 아니하리라고 반드시 말하지 못할 것이다.”<sup>31)</sup>

이유가 무엇이든 왜인 소오예 등을 후대하였기에 명나라의 염려는 컸다. 이에 대한 경계로 칙유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7월 29일 자 기사에 보인다. 대마도 교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다. 조선 전기, 왕조는 될 수 있으면 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까닭은 없었다.<sup>32)</sup> 해금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사대정책으로서의 해금정책은 청나라가 패권을 쥐게 되는 1644년에 와서 다른 논리가 들어선다. 청나라와 일본을 야만시하는 소중화의식이 그것이다.

통구스족의 일파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 청나라는 더는 중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조선은 판단하였다. 조선이나 청나라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랑캐이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청나라를 더는 중화 세계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1661년 청나라의 3대 황제인 순치제의 상을 당하여서 서장관인 권격(權格)은 예 표하기를 거부하였다. 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sup>33)</sup> 무력의 열세로 비록 굴복하였지만, 오

30) 『세종실록』, 세종 25년 7월 23일 기사.

31) 『세종실록』, 세종 25년 7월 29일 기사.

32) 임영정, 앞의 논문, 48~49쪽.

랑개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천계령 해제 이후 청나라의 배가 황해도 연안으로 오는 일이 잦았다. 만약 청인과 조선인 사이에 상거래가 걸리면 참형에 처했으며,<sup>35)</sup> 청나라에 해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36)</sup> 새로운 화이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할 만하다. 소중화의식은 해금정책을 펴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조선은 후기에 들어서도 강한 해금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는 청나라와 일본과는 다른 성향을 띤 바다정책이었다. 조선은 청과 일본으로 통상 대상국을 한정하였다. 이에 비해 청은 천계령 해제 이후 동남아시아와 서양 제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북해도·유구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창구가 개설되었다.<sup>37)</sup> 어찌 보면 조선이 동아시아 삼국 중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해금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통상도 자유로운 것이 아닌 해금에 기초한 통상이었다. 이는 소중화의식의 결과였다.

전 세계가 '대항해시대'로 나아갈 때, 조선은 바다 금지 정책을 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나라와 일본 특히 일본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청나라를 통해 혹은 서양과 직접 교역을 통해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다. 서양인에 눈에 비친 조선은 '은자의 나라'였으며,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불과했다. 1787년 5월 서양 열강이 의도적으로 조선에 진출을 시도한 때부터 시종일관 조선의 태도는 완고했다.

33)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34쪽.

34) 우인수, 앞의 논문, 124면. 그렇다고 하여 청나라에 대한 반감만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우호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중적이고 혼재된 인식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주 73)에 제시한 김현미의 책에 서술되어 있다.

35) 위의 논문, 138쪽.

36) 위의 논문, 153쪽.

37) 위의 논문, 143쪽.

영길리국은 지리상으로 동떨어지게 멀어 소방과는 수로의 거리가 몇 만여 리가 되는지 모르는 처지에 망령되이 교린을 핑계하고 교역을 억지로 요구하였으니, 사리에 타당한 바가 전혀 아니고 실로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순조실록 32년 7월 21일)

오랑캐의 배가 바다에 출몰하는 것은 본디 교활한 버릇이니, (헌종실록 6년 12월 30일)

외양에 출몰하며 그 사술을 빌어 인심을 선동하며 어지럽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영길리와 함께 모두 서양의 무리입니다. (헌종실록 12년 7월 15일)

장차 우리 소중화의 온 고장이 함께 멸망하여 妖獸와 怪鳥가 되어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戎狄의 화에 어찌 선악을 가릴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적으로 말하면 방자하게 의리를 말하고 전에 없던 이단을 새로 만들어 성인의 도를 위협하니, 이것은 華夷 人獸가 갈라지는 요점입니다. (헌종실록 13년 8월 9일)<sup>38)</sup>

모두 오랑캐로 간주한다. 오랑캐 의식의 단호함이 청국과 일본에서 서양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른바 조선 후기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일컫는다. 조선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수렴되거나 각축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을 굳건히 닫았다. 서양에 대해 경계심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서양인을 오랑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양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김학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조선을 난폭한 야만인들이 사는 변방의 나라로

38)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기록인데, 본고에서는 최광식 외 4명, 『한국해양사자료집 1·2·3』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의 것을 가지고 왔다.

보았다고 한다.<sup>39)</sup> 바다를 두려워해 해외 진출을 꺼리는 진취적이지 못한 나라로 인식하였다. 급기야 조선은 '후진적이며 미개하고 자활자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이므로 '문명 개화된' 일본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인식하기에 다다른다.<sup>40)</sup> 조선에 동정적이었던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까지도 조선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한다.<sup>41)</sup> 상황이 이러하였기에, 조선 멸망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이른바 '내인론'이 설득력이 있기도 한다.

바다에 대한 인식은 바다 자체보다는 바다 저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로, 바다 저편인 청국·일본·서양을 대상으로 그 인식을 살펴보았다. 청나라와 일본은 간혹 긍정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으며, 서양은 부정적 인식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폐쇄적 소중화주의'<sup>42)</sup>와 해금정책의 영향으로 빚어진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곳[대만] 사람들은 그[이방인]가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를 대접하는 범절이 몹시 공손했고 우리나라를 흠모하는 정도가 여느 오랑캐들이 중국을 사모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그곳 사람들도 역시 조선이 춘추의 의리를 잘 지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sup>43)</sup>

39)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출판부, 2010, 549쪽.

40) 위의 책, 557쪽.

41) 위의 책, 553쪽.

42) 본고에서는 소중화주의를 폐쇄와 개방으로 나누었다. 조선만을 소중화라고 보는 시각을 '폐쇄적 소중화주의'라 명명하였고, 조선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오랑캐이고 이에 모든 나라가 소중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을 '개방적 소중화주의'로 일컬었다.

43) 정조, <훈어>, 『홍제전서』 권178, 『한국문집총간』 267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 474쪽. 앞서 언급한 김윤희의 논문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김윤희, 위의 논문, 49~50

이방익의 표류는 조정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한다. 정조도 이방익을 만났으며, 오위장이란 높은 벼슬을 하사하였고, 박지원으로 하여금 이방익의 일을 한 책으로 구성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한다.<sup>44)</sup> 정조는 이방익의 표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방익의 표류와 관련하여 위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 이 글에서 정조의 ‘폐쇄적 소중화주의’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표해가>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도 지나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강북을 야만시하고, 우리의 예를 알아주는 강남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폐쇄적 소중화의식’의 표출이다.

<표해가>는 ‘폐쇄적 소중화의식’의 자장에서 나온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후기 조선의 상황이 이렇기에 바다는 부정적 의미로 그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 5. 결론

조선 후기 국문시가에서 바다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폐쇄적 소중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해금정책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본고는 매우 거친 논의이기에 고찰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조심스럽다. 국문시가에 형상화된 바다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시론적 고찰로서의 성격을 본고는 지니고 있다 하겠다.

세 가지 바다 인식에서 조선 후기는 b-1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폐쇄적 소중화의식’과 해금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른바 근대 혹은 개화기로 접어들면서 ‘바다’의 의미가 상당히 이

---

쪽. 참조.

44) 위의 논문, 47~8쪽.

질적으로 변화한다. 문명으로 통하는 길로서의 의미가 있게 된다.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해에 미국체험 가사인 김한홍(金漢弘, 1877~1943)의 <海遊歌>(일명 西遊歌)가 대표적이다. 즉 b-2의 상황이다.

바다의 인식 양상이 b-1에서 b-2로 변화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왜곡된 역사의 전개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미미하게나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개방적 소중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인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사상적 기반과 조선 후기 문학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치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후속 작업으로 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본 논의의 설득력을 높이는 길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병국,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5~60쪽.
- 김창경, 「중국 고전문헌에 보이는 ‘바다(海)’의 의미」, 『동북아 문화연구』 12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233~254쪽.
-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출판부, 2010, 1~635쪽.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1~307쪽.
- 김홍규, 「〈어부사시가〉에서의 ‘홍’의 성격」,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 \_\_\_\_\_,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집,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6, 217~242쪽.
- \_\_\_\_\_,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김학성·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 박영주, 「조선전기가사를 통해 본 자연과 서정」,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3.
-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연구, 2008, 1~807쪽.
- 신영명, 「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0.
-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 『문화의 두 얼굴』, 민음사, 2003.
-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일 연, 리상호 옮김,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1999.
- 임영정, 「조선전기 해금정책 시행의 배경」, 『동국사학』 31집, 동국사학회, 41~94쪽.
- 정병욱, 『고전 탐구의 뒀안길에서』, 신구문화사, 1982.
- 정요일, 『논어강의 天』, 새문사, 2009.
-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 최강현 편, 『기행가사 자료 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 최광식 외 4명, 『한국해양사자료집 1·2·3』,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 츠베당 토도로프·베르나르 포크를·로베르 르그로, 전성자 옮김, 『개인의 탄생』, 기과랑, 2006.
- 홍성구, 「청조 해금정책의 성격」, 이문기 외,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

역사재단, 2007.

『辭源』, 상무인서관, 1998.

ABSTRACT

Why is shaped negative 'Sea' in Classical Poetry during the late chosun.

Yi, Su-gon<sup>\*</sup>

Why the sea in Classical Poetry did not welcome literary thema? This paper is started from these questions. The Classical Poetry is difficult to find 'Sea thema' Seems sometimes but likely to have negative mean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will be literary.

Examined <Pyohaega(漂海歌)>, <Dohaega(渡海歌)>, <Yldongjangyouga 日東壯遊歌>.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ea is expressed in the negative. Depending on the perception across from the ocean, the sea is shaped differently. Showed a negative view of the Qing Dynasty, Japan, The west. It was derived from 'Closed Sojoongwhajooeui(小中華主意)' and 'Haegeum Policy(海禁政策)'. So the sea in Classical Poetry at late Chosun is shaped negative.

**Key Words** The sea, Space out of the sea, <Pyohaega(漂海歌)>, <Dohaega(渡海歌)>, <Yldongjangyouga 日東壯遊歌>, Closed Sojoongwhajooeui(小中華主意), Haegeum Policy(海禁政策).

논문투고일 : 2014. 5. 12

심사완료일 : 2014. 5. 25

게재확정일 : 2014. 6. 2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